

## K-유형유산(K-Tangible Heritage) : 바다 위에 세운 특별한 무덤, 문무대왕릉

A Unique Tomb Built on the Sea: The Underwater Tomb of King Munmu

윤은서\*

경주 동해안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덤이 자리하고 있다. 바로 신라 제30대 문무왕의 무덤, 문무대왕릉(文武大王陵)이다.

일반적인 왕릉이 봉분과 석물로 이루어져 육지에 세워진 것과 달리, 이 무덤은 파도가 드나드는 바다 한가운데 암초에 조성되었다. 그래서 흔히 세계 최초의 수중릉으로 불린다.



<사진 1> 문무대왕릉(출처: 경주 문화관광 홈페이지)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고전 서사 전반 및 대중문화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dbsdmstj2003@naver.com](mailto:dbsdmstj2003@naver.com)

문무대왕릉은 1967년 대한민국 사적 제158호로 지정되었다. 사적으로 지정된 까닭은 단순히 한 왕의 무덤이라는 점 때문만은 아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군주가 바다를 자신의 안식처로 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바다가 나라를 지키는 상징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육지의 봉분릉과는 전혀 다른 이 무덤은 신라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이다.

## 1. 문무대왕릉에 얽힌 이야기

문무왕(文武王, 재위 661~681)은 신라 제30대 임금으로, 삼국 통일을 완수한 인물이다. 그는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냈으며, 당나라와의 치열한 대립 끝에 마침내 신라가 자주적으로 다스리는 통일 국가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오랜 전쟁으로 국토가 피폐해졌고, 새로 편입된 백제와 고구려 유민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도 큰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문무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이 죽은 뒤에도 신라를 지키고자 하는 뜻을 특별한 방식으로 남겼다.

《삼국사기》 문무왕 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가을 7월 1일, 왕이 붕어하였다. 시호를 문무라 하였다. 신하들이 그의 유언에 따라 동해 어귀의 큰 바위 위에 장사 지냈다.” (秋七月一日 王薨 諡曰文武 君臣以遺言 葬東海口大石上)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21년조(681년).

문무왕은 일반적인 봉분릉이 아니라 동해 바다의 바위 위에 장사 지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가 바다를 택한 까닭은, 죽은 뒤 용(龍)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신하들은 그 뜻에 따라 장례를 치렀고, 여기서 말하는 ‘동해 어귀의 큰 바위’가 오늘날 경주 앞바다의 대왕암, 곧 문무대왕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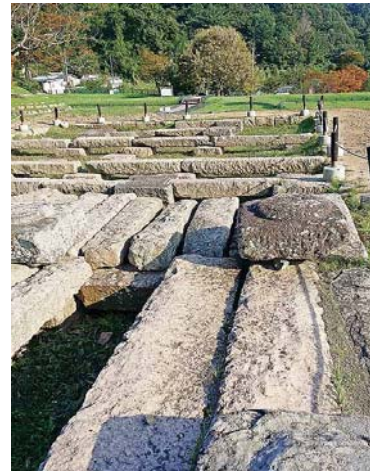
《삼국유사》는 문무대왕릉의 위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능(陵)은 감은사 동쪽 바닷속에 있다.” (陵在感恩寺東海中) 《삼국유사》 권1, 왕력(王曆), 문무왕조.



〈사진 2〉 경주 감은사  
(출처: 국가유산청)

여기서 등장하는 감은사(感恩寺)는 문무왕이 창건을 시작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절로, 아들 신문왕(神文王)이 즉위 후 완공하였다. 감은사는 대왕암과 마주 보도록 세워졌으며,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아버지(문무왕)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적 공간이었다. 특히 사찰 금당의 섬돌 아래에는 동쪽을 향한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삼국유사》는 이 구멍이 “용이 드나들기 위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쪽으로 난 구멍은 대왕암을 향하고, 대왕암 내부의 물길은 감은사를 향해 열려 있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바다에서 용이 된 문무왕이 감은사로 드나들며 불법(佛法)과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신라 사람들의 믿음을 반영한다.



〈사진 3〉 감은사의 용혈  
(출처: 국가유산청)

문무대왕릉과 감은사는 또한 이견대(利見臺)라는 장소와 연결된다. 이름 그대로 ‘멀리 바라본다’는 뜻을 가진 이곳은 신문왕이 바다를 바라보며 계시를 받았다고 전하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역대 신라 왕들이 대왕암을 향해 제향을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대왕암과 관련된 중요한 의례 공간이었다.

이견대와 관련하여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만파식적(萬波息笛) 설화이다. 《삼국유사》는 신문왕 2년(682)에 일어난 기이한 현상을 이렇게 기록한다.



〈사진 4〉 경주 이견대  
(출처: 국가유산청)

“이듬해 임오(壬午) 5월 초하루에... “동해 중의 작은 산 하나가 물에 떠서 감은사를 향해 오는데, 물결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하였다.” (明年壬午五月朔... “東海中有小山浮來向感恩寺, 隨波往來.”) 《삼국유사》 권2, 제2 기이.

점괘에 따르면, 해룡(海龍)이 된 문무왕과 천신이 된 김유신(金庾信)이 수성(守城)의 보배를 주려는 의도였다고 전해진다. 신문왕이 이견대에 나가 보니 부산(浮山)은 거북 머리 같았고 그 위에 대나무가 있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고 밤에는 하나로 합쳐졌다고 한다. 용이 그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면 천하가 태평해질 것이라고 하여, 피리를 만들었다. 나라에 근심이 생길 때 이 피리를 불면 평온해져서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처럼 문무대왕릉은 단순히 한 왕의 무덤으로 끝나지 않는다. 문무왕의 유언, 감은사의 완공, 이견대에서 전해진 만파식적 설화가 서로 맞물리며, 신라인들에게 문무대왕릉은 호국룡(護國龍)이 된 문무왕의 처소로 자리 잡았다. 바다, 사찰, 설화가 서로 연결된 이 복합적인 경관 속에서 신라인들은 죽은 뒤에도 여전히 나라를 지키는 왕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다.

## 2. 문무대왕릉의 구조와 장례 방식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왕암은 단순한 자연 암초와는 달리 인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바위의 한가운데는 십자형으로 물길이 나 있고, 중앙에는 덮개돌처럼 생긴 큰 바위가 놓여 있다. 이 돌은 남북 방향을 따라 길게 위치하며, 암초의 정중앙에 놓여 있어 자연석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처럼 보인다.

또한, 암반의 갈라진 방향, 즉 절리(裂理)를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대왕암을 이루는 바위는 북동 방향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와 다른 방향으로 반듯하게 다듬어진 흔적이 있어 그 부분으로 물길이 흐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일부를 인위적으로 깎아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인공적인 흔적 밑에 문무왕의 유골이 실제로 묻혀 있는 것인지, 혹은 봉토릉처럼 매장 공간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오래도록 의문을 품어 왔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2001년 KBS 다큐멘터리 <역사스페셜> 제작진, 지질학자들이 대왕암을 직접 조사하였다.<sup>1</sup> 최초로 바닷물을 퍼내고 내부를 관찰한 결과, 중앙의 바위 밑은 단단한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부장품이나 인공 석실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왕암이 전통적인 ‘매장릉’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문무왕의 장례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삼국사기》 문무왕 본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언이 전해진다.

“죽은 지 열흘 뒤에 화장(火葬)하여 장사 지내라.” (後十日以火燒葬)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제7, 문무왕 21년(681) 7월조,

이 구절은 문무왕이 직접 화장을 명령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더 나아가 문무왕릉비(文武王陵碑)에서는 「粉骨鯨津」이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sup>2</sup> 이는 “뼈를 가루로 만들어 바다(鯨津)에 뿌린다”는 뜻으로, 매장(埋葬)이 아니라 화장 후 뿔가루를 바다에 흩뿌리는 산골(散骨) 방식이었음을 말해 준다.

즉, 문무대왕릉은 바다 속 암초를 다듬어 만든 의례 공간에 유골을 흩뿌림으로써, 왕의 유언을 실현한 세계 최초의 수중릉이었다. 오늘날 과학적 조사와 사료 기록은 이 사실을

1 KBS 역사스페셜, “최초 발굴, 신라 대왕암”, 2001년 4월 28일.

2 경주 문무왕릉비(慶州 文武王陵碑) 후면에 기록되어 있다.

함께 입증하고 있다.

### 3. 오늘에 남은 문무대왕릉의 가치

문무대왕릉은 세계 최초의 수증릉이자, 무덤의 형식 자체가 곧 왕권을 드러내는 특별한 상징이다. 봉분을 쌓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를 무덤으로 삼은 이 선택은 단순한 장례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왕권, 그리고 호국 정신이 결합된 독창적인 결과이다. 문무왕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는 발원은 감은사와 이견대, 만파식적 설화와 이어지며, 신라가 통일 이후 새 질서를 안정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세우려 했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현대적으로 보더라도 문무대왕릉은 학술적 가치가 크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사료 기록, 비문 속 구절, 감은사 금당의 구조, 대왕암의 인공적 흔적은 모두 이 무덤이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적 실체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를 경계이자 보호막으로 삼았던 신라인들의 해양 인식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오늘날 문무대왕릉은 대한민국 사적 제158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왕의 무덤이라는 차원을 넘어, 한국 고대사의 독창성과 신라인들의 정신세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이다. 문무대왕릉은 우리에게 “문헌 무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나라를 지키는 무덤”으로 기억된다.